

제 267호 · 2014년 7월 30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퀴네나겔(Kuehne + Nagel)의 ‘탈유럽’ 글로벌화 전략

물류정책·사업동향

1.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대응 위한 남미 항만 추가 개발 필요
2. 중국~CIS간 최단 철도수송노선 첫 열차, 청두(Chengdu)에서 출발
3. 인도,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한 대단위 보관시설 투자 시급
4. Panalpina, 상반기 수익성 개선

물류시장동향

1. 3사분기 물류신뢰지수, 회복세 전환 기대
2. 러시아 철도청, 나진항 터미널 운영 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퀴네나겔(Kuehne + Nagel)의 '탈유럽' 글로벌화 전략



퀴네나겔 프로필

- 화물 포워딩 및 종합물류 업체. 스위스에 본사 위치
- 주요 사업 영역은 해상 화물, 항공 및 계약 물류로서 특히 IT 기반 SCM 서비스 주력
- 철도 및 도로 운송, 창고업 및 유통업 진출
- 유럽 시장의 최강자
- 최근 아태 지역과 북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사업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음

KÜHNE+NA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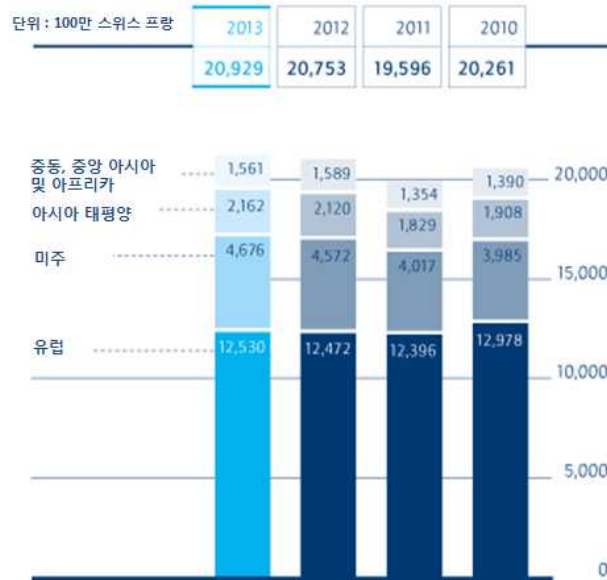
○ 퀴네나겔의 사업 여건 변화 → 탈유럽 글로벌화 전략

- 퀴네나겔은 유럽 물류시장 최강자 자리를 지켜왔으나 세계 무역의 침체, 과잉 운송능력, 높은 운임률 변동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위협받자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음
- 특히 퀴네나겔은 이와 같은 도전에 맞서 사업 지역 글로벌화, 새로운 시장 진출(콜드 체인), 얼라이언스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퀴네나겔의 매출은 현재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퀴네나겔의 2013년 총매출은 209억 2,900만 프랑(한화로 약 23조원)으로 전년대비 0.8% · 1억 7,600만 프랑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중 유럽지역이 가장 높음
-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유럽연합(EU)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이고, 역내외 수입을 모두 합하면 세계 전체 상품 수입의 31%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시장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퀴네나겔의 지역별 매출 증가율은 미주 2.3%, 아시아태평양 2.0%, 유럽 0.5%로,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의 매출신장은 저조했으며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1.8%가 하락했음
- 퀴네나겔은 2013년 동안 비즈니스 확대를 4억 7,100만 프랑, 기업 인수로 3백만 프랑의 매출이 증가했으나 환율변동으로 2억 9,800만 프랑의 손실을 입었음

< 퀴네나겔의 지역별 매출액 >



자료 : kuehne + nagel annual report(www.kn-portal.com)

○ 대응 전략 1 : 왕성한 해외기업 인수 활동 통한 글로벌화

- 기업 인수, 합병, 투자 추이를 보면, 인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 퀴네나겔의 기업인수 현황 >

대상기업	연도	업종	주요 화물	국가
PerishablesInternationalTransportation	2012	콜드체인 물류	농산물, 식품 및 부패성 화물	캐나다
Link Logistics International Pty.Ltd.	2012	콜드체인 물류	농산물, 식품 및 부패성 화물	호주
RH Group Ltd	2011	육상 운송		영국
Drude Logistik	2011	계약 물류		독일
J. van de Put Fresh Cargo Handling	2011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네덜란드
Mastertransport SA	2011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에콰도르
Agencia de Aduanas Excelsia Ltda	2011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콜롬비아
TranslagoS.A.S.	2011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콜롬비아
RR Enterprises	2010	콜드체인 물류	소비재 / 유통	인도
J. Martens Holding AS	2009	화물 포워딩	석유 및 가스	노르웨이
Elite Airfreight Inc	2008	위험물	석유 및 가스	미국
Cordes & Simon	2007	계약 물류		독일
G.L. Kayser	2007	계약 물류		독일
Romero and McNally Brokers	2007	계약 물류		멕시코
Censped d.o.o.	2007	화물 포워딩		슬로베니아
Spediten A/S	2007	계약 물류	산업 및 제조	노르웨이
Export Services Division of HSBC Bank plc	2006	정보관리 서비스	소비재 / 유통	영국
F W DEUS GmbH & Co. KG	2006	계약 물류	소비재 / 유통	독일
ACRLogistics	2005	계약 물류		영국

대상기업	연도	업종	주요 화물	국가
Ziegler & Co. ApS	2005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덴마크
Wm. Martin & Co (Marine) Ltd	2005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영국
Aces, Ltd	2005	화물 포워딩		미국
Gebr. M	2005	육상 운송		독일
WM Cargonet	2005	육상 운송		독일
H	2004	육상 운송		독일
GT Spedition A/S	2004	육상 운송		덴마크
Kintetsu World Express	2004	화물 포워딩		
Grifcold Inc	2004	화물 포워딩	소비재 / 유통	캐나다
Nether Cargo Services B.V.	2004	화물 포워딩		네덜란드
Groupe CAT Overseas Logistics	2004	화물 포워딩		프랑스
Pracht	2003	계약 물류		독일
WM Group	2003	계약 물류		독일
SerCom Solutions Limited	2003	계약 물류		스위스
Seabrook & Smith	2003	계약 물류		영국
Kintetsu World Express	2003	계약 물류		
Logwin (formerly Birkart Globistics)	2003	전시회 및 이벤트 물류		독일
Nakufreight	2002	화물 포워딩		모리셔스
Orient Transport Co	2002	화물 포워딩		이집트
Ibrakom	2002	화물 포워딩		러시아
Agentes Nacionales ANASA S.A	2002	화물 포워딩		코스타리카
Deicmar SA	2002	화물 포워딩		브라질
Nortel Networks	2002	계약 물류		
Toll Asia - (Old Company Structure)	2001	계약 물류	하이테크	
Vertical Integration Association	2001	화물 포워딩	하이테크	
USCO	2001	계약 물류	소비재 / 유통	
Logistics SRL	2001	계약 물류		이탈리아

자료 : www.gscintell.com

- 특히 최근 5년간 인수 사례 11건 중 중동(오만), 아시아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북미(캐나다), 남미(에쿠아도르, 콜롬비아 3건) 등 비유럽 지역(국가) 기업에 대한 인수 건수가 8건으로 퀴네나겔의 지향이 '탈유럽'임을 알 수 있음

- 아시아태평양, 남미 지역 인수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춰보아 퀴네나겔이 아시아태평양 및 남미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음

○ 대응 전략 2 : 사업 다각화 및 콜드체인 물류시장 공략에 초점

- 최근 5년간(2009~2013년) 기업 인수 추이를 보면 퀴네나겔은 사업 분야를 어느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수된 기업들을 사업 영역별로 분류해보면, 도로 운송, 화물 포워딩, 계약 물류 등 다양함

- 그러나 콜드체인 물류업체 인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

- 2012년 7월에는 캐나다 벤쿠버의 콜드체인 업체 Perisherables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PTI)를 인수한 바 있음

※ PTI는 신선 및 냉동 식품(과일, 채소, 수산물)을 벤쿠버 국제공항을 통해 운송

- 역시 같은 해 퀴네나겔은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물류업체를 사들였는데, 이 또한 콜드체인 물류업체였음
- 2011년 인수한 콜롬비아의 트랜슬라고(Translago) 역시 콜드체인 물류회사였음
- 기타 인수합병 및 투자 사례 외에 해외 진출 사례에서도 콜드체인 시장 진출 의욕이 엿보임
 - 일본 진출 사례(대응전략3 참조)
 - 2014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진출 사례(대응전략 3 참조)
- 퀴네나겔의 지속적인 투자는 콜드체인 시장의 확대에 있음
 - 콜드체인 시장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식품산업을 위한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011년 755억 6,500만 달러에서 2017년 1,471억 4,220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¹⁾
 - 콜드체인 시장 중 전체 매출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연평균 10.7%,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는 아태지역은 연평균 17%가 증가하여 아태지역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예상됨
- 그러나 퀴네나겔이 반드시 콜드체인 시장 진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님
 - 2013년 4월, 퀴네나겔은 중동 오만의 Khimji Ramdas 그룹 소유 Universal Freight Services의 지분 70%를 인수
 - 동 인수 대상 회사는 퀴네나겔의 주 업종이라 할 수 있는 화물 포워딩 업체임
- **대응전략 3 :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외 시장 공략 보완**
- 퀴네나겔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상호 보완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것임
- 현재 퀴네나겔이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AMB Property Corporation(AMB), Coastal Logistics Group(CLG) 등 14개 기업임
 - AMB는 일본의 유통 부문 관련 임대업자로서 도쿄 지역 내 2개소의 부동산을 개발한 바 있는데, 퀴네나겔은 AMB를 통해 이중 한 곳을 임대(5,800m²)했음
 - ※ 일본 간사이 지방의 식품유통 사업에도 진출함

1) Cold Chain Market for Food Industry (With a focus on 3PL Service Providers) By Types (Storage & Transport), Product Types (Chilled & Frozen), Applications (Fruits & Vegetables, Bakery, Dairy & Sea Foods) & Geography: Global Trends & Forecasts to 2017, MarketsandMarkets, 2013.2.

- AMB를 통해 일본에 진출했다면, 다음 공략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 실제 AMB의 지역 사업부문은 한국과 일본이 한데 묶여 있음

< 퀴네나겔의 얼라이언스 파트너 >



- 2014년 2월, 퀴네나겔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기반 포워딩 업체인 Commodity Forwarder Inc와 함께 부패성 농수산물(perishables) 시장에 대한 운송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 과일, 채소, 생선, 육류 및 가금류를 포함한 부패성 농수산물 등에 대해, 각각의 사업 능력, 식품 전문가, 정보 시스템 등을 결합, 미국과 기타 지역간 각각의 운송 모드를 활용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
- 퀴네나겔은 지금까지 해상화물, 항공화물, 철도, 육상, 창고업, 유통을 포함한 전 물류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왔음
 - 지난 몇 년간 퀴네나겔은 수익률을 높이고, 회사가 구축해왔던 고객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업 분야를 계약물류, 콜드체인 등으로 다각화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도 빠르게 진출하고 있음
 - 또한 강세를 보여준 해상운송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틈새시장 상품을 발굴하고 있음
 - 즉 에너지 그리고 프로젝트 서비스와 냉장 컨테이너 물동량은 특정 상품 카테고리 또는 지역에 집중하거나 음료와 와인물류 등의 전문 물류서비스를 통해 이 분야에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임
 -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퀴네나겔의 표준화된 시간확정(Time-defined) 항공 운송 상품을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위한 웹(web)기반의 통합된 견적, 화물 예약 및 트래킹

서비스인 KN FreightNet을 선보였음²⁾

< 퀴네나겔의 글로벌 네트워크 >



자료 : kuehne + nagel annual report(www.kn-portal.com)

- 퀴네나겔은 유럽에 기반을 둔 긴 역사를 가진 민간물류기업으로 유럽이라는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계약물류, 화물운송 등 정통 물류 분야에 서비스를 집중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음
 - 이를 바탕으로 신규 분야 진출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해왔으나 타 기업에 비해 점진적인 시장확대 전략을 유지했음
 - 또한 부동산, 장비임대, 특수화물 등 전문 틈새시장 진출 노력도 기울인 민간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사례인 동시에 정부의 지원보다 시장에 의존해 스스로 지속적인 전문지식과 대규모 로컬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한 사례로 평가됨
 - 퀴네나겔의 성장전략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취약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앞서, 핵심지역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성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

자료 : www.gscintell.com, 2014.7.24.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2) Kuehne + Nagel to offer airfreight new e-commerce solution, www.supplychaindigital.com, 2014.7.23.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대응 위한 남미 항만 추가 개발 필요

-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 운항의 효율성 극대화 및 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더 크고 더 새로운 선박을 투입하여 더 적은 척수로 서비스하는 경향이 전 세계 모든 항로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아시아-남미 항로의 경우 최근 몇 년 전까지 총 180척이 투입되고, 평균 선형은 5,000 TEU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 척수는 155척으로 감소하고 평균선형은 6,200TEU로 증가
 - 또한 아시아-남미항로에 투입된 선박 중 50%가 5년 미만의 선박으로 1년 전의 40% 대비 높은 비중을 보임
- Lloyd's List는 향후 수년 내에 현재 발주 중인 13,000TEU급 대형선 중 일부가 아시아-남미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는 초대형(Ultra-large) 컨테이너선박이 동서항로에 투입됨으로써 8,000TEU~14,000TEU급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 선박이 아시아-남미항로와 같은 남북항로로 전이되는 낙수효과(cascade effect)에서 기인함
- 현재 발주 중인 149척의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 중 43%가 CMA-CGM, CSCL, Hanjin, Hamburg Sud, MSC, CCNI, Evergreen, CSAV 등 아시아-남미 항로의 주력 선사에게 의해 운항될 예정임
 - 2014년 상반기 기준 인도된 총 31척의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 중 4척이 아시아-남미 항로에 투입되고, 대부분은 주요 동서항로에 투입되었음
 - 14,000TEU 이상 초대형 선박 85척이 인도 또는 항로에 투입될 예정에 있어,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의 아시아-남미항로 전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대형화되어 가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응하고 복합운송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물동량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 UNEC(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는 2016~2019년 사이 남미 동안 및 서안에 13,000TEU급 선박이 기항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칠레의 발파라이소(valparaiso)항과 같은 거점항만들은 62m 아웃리치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구입하고, 대형선박의 기항에 대비하고 있음
 - 최근 아시아-남미항로에 신규로 투입된 6척 중 4척이 9,400~9,700 TEU급으로, 2013년에 투입된 4,300~5,000TEU급 7척과 대조를 이룸
- 따라서 최근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는 남미 지역 주요 항만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남미 항만의 환경변화를 활용한 실질적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www.lloydslist.com, 2014.7.

김근섭 부연구위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중국~CIS간 최단 철도수송노선 첫 열차, 청두(Chengdu)에서 출발

- 지난 7월 16일, 중국과 CIS 5개국간의 화물수송기간을 9일까지 단축가능한 철도노선이 개통되었음
- 성도중아정기열차물류유한공사(据成都中亚班列物流有限公司)의 CEO인 왕빈위(王彬蔚, Wang Bin Yu)에 따르면 이 열차는 청두역을 출발하여 란저우(Lanzhou)와 우루무치(Urumqi)를 거쳐, 4일 후에 중국 국경인 알라산커우(Alashankou)에 도착하게 됨
 - 이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Almaty),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Bishkek),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Tashkent), 타지키스탄의 두산베(Dushanbe)를 경유하여 종착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Ashgabat)에 도착했음
 - 이 루트는 약 9일에서 11일 정도가 소요되며, 시간은 기존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음
- 이 열차의 최대 수송능력은 컨테이너 35대이며, 이번 첫 수송에서는 25대를 수송했음
 - 주요 품목은 기계류 및 장비, 예비부품 및 소비재 등이며, 가치는 약 1,200만 달러 정도임
- 향후 이 노선은 소비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을 수송하는 교역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아아시아 국가들의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 농산물 수출 등에 유리할 것임
- 이 노선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에 제안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개념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제12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것임

<조지아 위치>



출처: russian.china.org.cn

자료 : russian.china.org.cn, 2014.7.20 / www.transreporter.com, 2014.7.23.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인도,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한 대단위 보관시설 투자 시급

- 수확 후 손실(Post-harvest losses, PHL) 문제가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식량수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많은 신흥시장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공급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정임
- 특히 인도는 엄청난 수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식량을 효과적으로 보관 및 공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인도는 매우 적은 수의 정온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체 과일 및 야채 생산량 중 단지 2%만이 해당 시설에 보관이 가능함
 - 인도식품회사(Food Corporation of India, FCI)³⁾에 따르면 2009년~2013년 사이 인도에서 생산된 전체 밀과 곡물의 9%(7,900만 톤)가 손실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보관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PHL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류서비스의 공급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인도의 시장크기에 비해 3자 물류의 규모는 여전히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복잡한 세금제도, 극도로 분화된 운송수단,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식량수급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 전역에 걸쳐 노후화된 물류 인프라 등 많은 걸림돌이 존재함
 - 또한 식량의 주요 운송수단인 도로운송을 담당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인도의 물류시장은 매우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 향후 인도의 국가식량 안보법이 제정되면 식량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배송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법안은 인도 정부가 전체 인구의 67%에 대해 식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재고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절한 식량 보관시설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인도의 식량안보 강화에 따른 식량 보관시설에 대한 필요성 증대는 물류기업에게 인도라는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7.24.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3) 인도 식품회사법(1964)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격지원, 공공 유통 시스템을 통한 식량 유통, 국가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식량재고 확보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Panalpina, 상반기 수익성 개선

- 스위스의 세계적 물류기업인 Panalpina의 2014년 상반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환율 변동을 반영한 Panalpina의 상반기 총수익과 EBIT⁴⁾는 스위스 프랑(CHF) 기준 각각 777.9백만 CHF, 60.1백만 CHF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음
 - 이러한 결과는 물류분야의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음
 - 항공 및 해상 물동량은 각각 4%와 8% 증가했으나,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물동량 증가 대비 수익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 Panalpina의 Peter Ulber 최고경영자는 상반기 Panalpina의 운영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
 - 첫째, 작년부터 실시한 물류부문의 손실 감축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음
 - 둘째, 해상 운송 부문의 안정성 확보 등과 같은 수익성 개선 방안에 기인함
- Panalpina의 상반기 운영 결과를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상반기 총수익과 EBIT
 - 총수익은 777.9백만 CHF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764.9백만 CHF에 비해 2% 증가했음
 - 총 운영비용은 689.2백만 CHF으로 전년 동기 682.7백만 CHF에 비해 1% 증가했음
 - EBIT는 60.1백만 CHF으로 전년 동기 58.8백만 CHF에 비해 2% 증가했음
 - 총수익 대비 EBIT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7.7%를 기록했음
- 항공운송 부문
 - Panalpina의 항공 물동량은 전 세계 항공화물 시장 성장에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음
 - 이러한 성장은 Panalpina가 추진하고 있는 항로 최적화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음
 - 톤당 수익은 745 CHF으로 전년 동기 778 CHF에 비해 4% 감소했으나 총수익은 310.8백만 CHF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음(전년 동기 312.2백만 CHF)
 - 항공운송 부문의 총수익 대비 EBIT는 18.4%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19.1%)에 비해 감소했음
- 해상운송 부문
 - 전 세계적으로 해상운송 분야의 높은 환율 변동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4) Earnings Before Interests and Taxes, 이자 및 세금 지출 이전의 수익

- Panalpina의 해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음
 - TEU당 수익은 320 CHF으로 전년 동기 338 CHF에 비해 5% 하락하였으나, 총 수익은 246.6백만 CHF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242백만 CHF에 비해 다소 증가했음
 - 해상운송 부문의 총수익 대비 EBIT는 2.9%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6.9%)에 비해 감소했음
- 물류 부문
- 물류 부문의 총수익은 220.6백만 CHF로 전년 동기 210.7백만 CHF 대비 5% 증가했음
 - 물류 부문의 EBIT 손실은 전년 동기 17.6백만 CHF에서 4.3백만 CHF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유럽 지역의 육상 운송 계약과 수익 창출이 낮은 시설들의 계약 만료 및 부가가치 서비스 (value-added services) 실시 결과로 분석됐음

자료 : 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7.22.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3사분기 물류신뢰지수⁵⁾, 회복세 전환 기대

- 7월 물류신뢰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하면서 3사분기 물류신뢰지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물류신뢰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나, 7월 물류신뢰지수는 전월대비 0.9point 상승한 56.1point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
 - 항공운송 신뢰지수는 유럽경제회복으로 전월대비 3.3point 상승한 52.4point를 기록한 아시아-유럽 노선에 힘입어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50.8%를 기록함
 - 해상운송 신뢰지수는 55.6point를 기록하였던 5월의 물류신뢰지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향로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6point 상승한 53.8point를 기록함
- 유럽경제회복 움직임과 더불어 연휴시즌에 대한 기대감 및 미국 기업들의 재고보충 계획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물류신뢰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7.23.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 러시아 철도청, 나진항 터미널 운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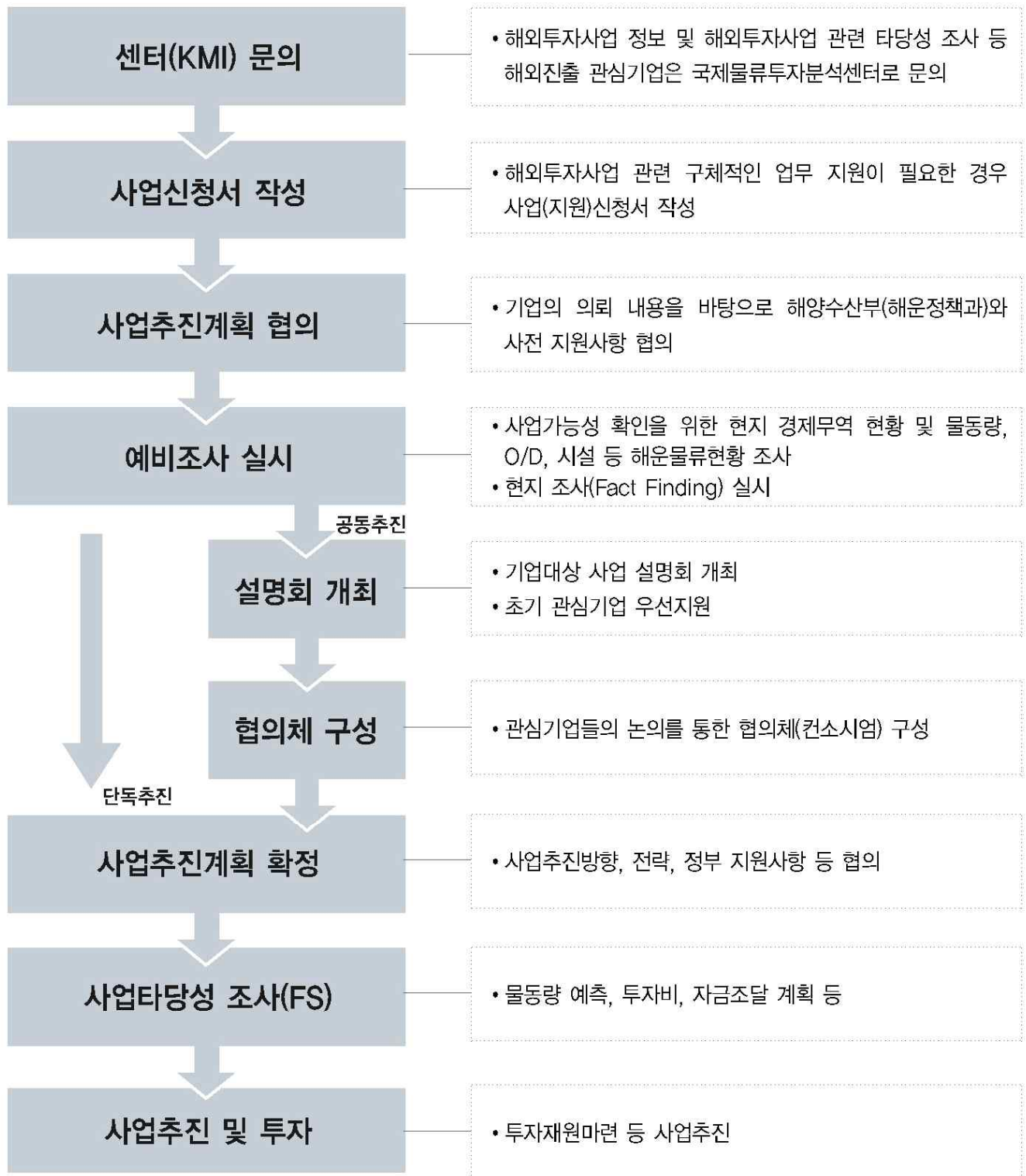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나진항의 북-러 합작 화물터미널이 운영에 들어갔음
 - 나진항 터미널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다기능 부두로 건설되었으며 연간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러시아는 나진-하산 간 철도 증설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철도 연결의 확대에 보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 러시아는 이전부터 극동지방에 12개월 이용 가능한 항만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러시아 철도청은 나진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함
 - 석탄 터미널 건설을 위해 95만 루블(한화 약 2억7천만)을 투자함
 - 1년 안에 러시아 석탄 물동량이 5백만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함
 - 이 터미널을 통해 석탄 뿐만 아니라 철광석, 목재, 식료품도 운송 가능함

자료 : proved-partner.ru 2014.7.23.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i@kmi.re.kr)

5) Stifel Logistics Confidence Index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